

A GROWING LOVE / VOL. 01

나비의 성장앨범

너의 작은 우주 곁에서



나비가 마음을 열던 순간들을 모아

OVER THE RAINBOW

너에게 쓰는 첫 문장

나비에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다는 걸,

네가 내 곁에 가만히 앉아 준 날

처음 알았어.



상자 밖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조그만 앞발을 걸치고 우리를 보던 눈.

낯선 세상이 조금씩 안전해지기를, 우리는 기다렸어.

한 뼀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졌다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기다렸어.
어느 날 네가 먼저 옆자리에 앉았을 때,
그 작은 거리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았지.

처음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너의 자리가 생기고, 우리의 하루가 바뀌었다.

너를 이루는 작은 취향들

01 조용히 빗방울을 구경하는 시간

02 몸에 꼭 맞는 종이 상자

03 아무도 깨우지 않는 낮잠

하나씩 알아갈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너.

평범해서 더 소중한



비 오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던 나비



책 한가운데 먼저 자리를 잡던 오후

매일 비슷한 듯 조금씩 다른 너의 표정들.

II

창 하나만큼 넓은 너의 세상

바람에 흔들리는 잎, 유리창을 따라 흐르는 비.
네가 오래 바라보는 것들을 우리도 좋아하게 됐어.



YOUR LITTLE WORLD

오늘도 한 뼘 더 넓어진 세상

함께 자란 건 너만이 아니었어

첫 인사

상자 뒤에서 눈이 마주쳤다.

마음을 연 날

같은 방에서 편안히 잠들기 시작했다.

우리의 일상이 된 너

빈 옆자리를 자연스럽게 너에게 남겨 둔다.

기쁨은 이런 얼굴을 하고



그날의 너를 보고 있으면, 지금의 우리도 웃게 돼.

“

네가 골라 앉은
그 작은 자리만큼,
세상이 다정해졌다.

특별한 날보다, 너와 보낸 보통의 날들을 기억해.

조금씩 쌓여, 우리라는 계절



아기 나비 · 작은 상자에서 고개를 내밀던 시절



상자 하나가 가장 포근했던 날

어린 날의 작은 몸과, 우리 곁에서 편안해진 모습.

같은 방, 다른 일. 그래도 함께인 우리



책을 읽는 우리 곁에서 너는 잠이 들고,
느린 오후는 그렇게 가족사진이 되었어.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이 오래 기억에 남을 줄은 몰랐지.

OUR FAMILY

함께여서 완성된 한 장

가장 가까운 곳의 사랑



가족과 함께 장난감을 쫓던 저녁



같은 창밖을 바라보던 우리

누군가의 곁에서, 아무 걱정 없이 쉴 수 있다는 것.

오래 전하고 싶은 말

나비야,

네 마음을 서두르지 않기로 한 날부터
우리는 더 좋은 가족이 되어 갔어.

잠깐 기대 오는 머리, 천천히 감았다 뜨는 눈.
너만의 작은 인사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게 참 좋아.

언제나 네가 고를 수 있는 자리를 남겨 둘게.
혼자 있고 싶은 날도, 곁이 필요한 날도
이 집이 너에게 가장 편안한 우주이기를.

너의 작은 인사를 알아듣는 가족이

너의 내일에 바라는 것들

01 창가의 햇별을 오래 누리기

02 좋아하는 자리에서 편안히 쉬기

03 네가 원할 때 먼저 다가오기

크고 특별한 일보다, 작고 평안한 매일을.

TO BE CONTINUED

언제나
네 자리는 여기에.



너의 작은 인사를 알아듣는 가족이

PAWPRINT ALBUM

나비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 자라고 있어요.

이 책의 다음 페이지는
너와 함께할 내일입니다.

A QUIET KIND OF LOVE

발자국앨범 · 오버더레인보우